

가사노동은 왜 여성의 노동이어야 하는가?

송혜림 (울산대학교 아동·가정복지학과 교수)

1. 가사노동과 여성

다양성은 있으나 많은 시대, 사회, 문화에서 가사노동은 남성이 아닌 여성이 담당해 왔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인류학자들의 말처럼, 남성은 사냥하고 여성은 채집하며 (man the hunter, woman the gatherer) 살던 시절, 몸으로부터 나오는 힘의 차이나 신체적 특성(출산, 수유 등)은 한 성의 역할도 다분히 결정했다는 사실에는 동의할 수 있다. 즉 여성과 남성의 몸의 특성(sex)은 그들의 성역할, 즉 사회문화적 성(gender)으로서 여성다움과 남성다움을 규정하는 데 큰 영향을 미쳤다. 몸의 특성에 따라 자연스럽게 여성은 집이나 그 근처에서 출산·수유·육아 및 이와 관련된 활동, 소위 가사노동에 해당되는 일을 담당했을 것이고, 또 그렇게 남성들은 사냥하러 전쟁하러 집을 떠나게 되었을 것이다 (Alleman-Tschopp, 1979 ; 조성오, 1994). 이는 곧 여성역할과 남성역할의 분리를 의미하며, 나아가 여성 또는 남성이 있어야 할 곳, 해야 할 일 등을 규정하기까지 확산된다. 즉 성은 성정체감으로, 이는 또다시 성역할, 성별분업양식으로 확장되는 것이다. 이를 현대적 개념으로 하면 여성- 가정- 사적 공간 - 가사노동 그리고 남성- 사회 - 공적 공간 - 임금노동이라는 이중구조의 전개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생산성이 약하고 인간들의 삶이 자연의 영향을 많이 받던 시절에 이러한 성별분업양식은 그 집단의 생계와 생존, 생활을 위해 필요한 것이며 또 그래서 합리적인 방식이라고 할 수 있다 (Beer, 1984). 문제는, 현대 사회에서도 여전히 이러한 성별 분업양식이 합리적인가 하는 것이다. 많은 통계, 연구의 결과를 거론하지 않아도 우리의 일상적 경험 속에서 가사노동은 여전히 주로 여성이 담당하는 일로 인식되며, 여성이 취업한 경우에도 남편이 가사노동을 반분하는 경우는 흔치 않다. 여성의 신체적 힘이 약하다고 해서 못 하는 일, 못 할 일이 점점 사라지는 문명의 정보화 시대에 우리의 일상적인 가정생활은 여전히 과거의 성별분업양식에 따르고 있으며, 이는 가정에서의 분업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사회로까지 확장되는 또다른 문제를 양산한다. 출산을 비롯하여 여성이

가정에서 담당해야 하는 육아, 가사노동 등의 역할은 여성의 취업생활에도 영향을 미쳐 취업의 중단과 단절을 반복하게 되는 경향이 뚜렷하며, 이는 또다시 열악한 취업환경과 맞물리는 현상을 가져온다. 또한 열악한 취업환경, 직장-가정 양립의 어려움과 같은 조건은 비자발적으로 혹은 차선으로 가사노동을 전담하는 전업주부를 양산하기도 하는데, 현대 사회의 가사노동은 개별 가정에 분산되고 고립되어 행해지며, 공식적인 가치평가의 과정에서 제외되므로 이러한 노동을 전담하는 집단(주부, 특히 전업주부)의 정체감, 사회적 지위 등이 또다시 문제로 거론되어야 한다. 그 모든 결과로 여성들은 자신의 삶에 대한 다양한 기회 앞에 서지 못하고, 자발적·주체적으로 인생을 선택하고 설계하는 과정에서 수많은 한계에 직면하며 살아가게 된다.

즉 그것이 구별될 필요가 없는 사회에서도 여전히 구시대적 성별 분업방식이 일상생활에 깊이 뿌리 박혀 있으며, 이는 가정 안팎에서 여성의 생활지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래서 여성학자들은 성별역할분담과 그에 대한 기대가 인간사회에 가장 오래된, 그리고 가장 뿌리가 깊은 차별의 유형이라고까지 지적하고 있다 (Biesecker, 1987).

가족은 양성간, 세대간 관계(신뢰감, 애정 등)를 바탕으로 생식, 부양, 양육, 교육 등이 이루어지는 하나의 사회적 단위이다 (Kaufmann, 1995). 현재 가족의 취약점은 다분히 양성간, 세대간 관계에 있어서의 불평등, 갈등, 차별 등에 기초하며, 동시에 이로 인하여 가족원에 대한 생식, 부양, 양육, 교육 등의 활동이 적절히 수행될 수 없다는 면에도 기인한다. 여성이 경제력을 갖고 가정과 사회 양 생활세계에서 당당한 주체로 살아가기 원하는 상황에서, 이제까지 지속되어 온 가족원 간 불평등한 역할분담, 남성 중심의 생활문화, 여성에게 과중하게 부여되는 가사노동수행 등은 오래 가지 못할 것이며, 어떠한 방식으로든지 해결되어야 할 시급한 과제이다.

그리고 상대적으로 우리 사회 남성에게는 한 가족을 먹여 살려야 한다는 가계부양자로서의 역할이 한 편으로는 그들의 가정, 사회에서의 권력을 지탱해 주기도 하지만 또 다른 한 편에서는 상당한 부담감으로 작용한다. '돈을 벌어 가족을 먹여 살리기' 위한 임금노동을 위해 이 땅의 남성들은 기운을 소진하고, 스트레스를 받으며 일을 하고 있다. 그리고 이는 전세계에서 유명한 우리 나라 직장인의 장시간노동으로 나타나며, 또한 그 결과 남성들은 가족에서 자기 자리를 찾기 힘들게 된다. 결국 남성 개인의 복지도, 가정 전체의 복지도 지금과 같은 구도로는 실현되기가 어려운 실정이라고 할 수 있겠다.

이 사회는 모든 남성이 권력을 갖고, 모든 남성이 높은 소득을 유지하며 살 수 있는 사회가 아니며, 실직과 질병 등의 위험은 늘 우리 주위에 있다. 여성에게 직장-가정 양립이 힘들고, 전업주부에게는 단지 가사노동만 한다는 사실이 자아정체감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소지가 많은 것처럼, 남성에게도 직장-가정은 양립하기 힘든 일이며, 더구나 남성에게는 직장노동 외에 가사노동이라는 선택의 여지도 별로 없다.

가사노동은 가족구성원의 욕구를 충족시키며, 일상적인 생활의 재생산을 위해 필수적인 노동이지만, 가사노동을 여성이 전담하는 한, 여성에게 가사노동은 장애와 방해의 요인이 될 소지가 많다. 결국 이 시대 가사노동은, 그 자체가 문제라기보다, 그것을 여성이라는 한 性이 전담한다는 사실, 그리고 사적인 생활의 장에 분산되어, 개별적으로 수행된다는 사실이 합해져서, 가사노동 수행의 조건에서 더 원초적인 쟁점을 찾아야 할 것이다. 여성이 사적인 생활세계, 즉 가정에서 약자(영유아, 아동, 노인, 환자, 장애인 등)에 대한 돌보기와 뒷치닥거리를 붙들고 있는 한, 그들의 경쟁력은 상실될 수밖에 없다 (Vanke, 1980).

현재, 여성의 취업을 상승은 더 이상 가정에만 머물고 싶지 않거나 머물 수 없는 여성들이 임금노동 영역으로 그들의 생활을 확장시킨다는 뜻이며, 이는 또 한 편에서 그러나 일상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는 가사노동은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를 제기한다.

물론, 가족원의 표준에 따라 일정한 부분의 가사노동은 상품대체, 기계화, 사회화, 산업화, 집단화, 공무화 등에 맡겨버릴 수 있고, 현재 그럴 수 있는 가능성이 많아졌다. 그러나 이 또한 한 가정이 갖고 있는 구매력에 큰 영향을 받으며, 따라서 결국은 계층 간 문제로 확산될 소지가 크다. 동시에 사회로부터 제공되는 다양한 가사노동 대체 상품과 용역의 수준과 질 그리고 획일화 등이 해결되어야 할 문제로 남아 있다. 또한 독특한 가정생활의 의미, 가족원이 함께 만들어 가는 생활문화라는 차원에서 가사노동의 완벽한 사회화는 가능하지 않으며, 이미 그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그리고 개별 가족은 그들이 갖고 있는 표준과 선호도에 따라 주체적으로 또 자율적으로 산업노동이나 공무노동을 통하여 제공되는 가사노동 대체 상품과 용역을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가져야 하며, 의사결정할 수 있는 기회도 필요하다. 따라서 그 어떤 사회화의 과정으로도 대체될 수 없는 가사노동은 여전히 가족원의 손에 놓여져 있다. 아직도 상당히 많은 가사노동이 그러하다. 그렇다면 이는 어떻게 해결해야 할 것인가?

결론은 간단하다. 여성이 가정 밖의 영역으로 뛰어드는 만큼, 이제는 남성도 가정생활 영역으로 돌아와서, 가정 안팎에서 여성과 남성이 필요한 일들을 함께 수행하고 함께 누리며 살아야 한다. 경제적 부양자로서의 역할도 남녀가 공유하고, 가정에서의 가사노동을 통한 일상적 재생산 역할도 함께 해야 한다. 그래서 서로의 경험이 공유되고 서로의 일에 대한 평가를 제대로 할 수 있어야 한다. 내가 안 한다고 해서, 어떤 노동의 형태를 비하하지도, 과소평가하지도 않고, 그 일을 하는 사람을 무시하지도 않으며, 그 일의 수행조건과 가치에 대한 관심을 개인과 가족과 사회가 함께 갖는, 그런 생활문화가 필요하다. 가사노동이 여성노동인 한, 남녀가 더불어 사는 생활문화는 애초부터 불가능하다.

2. 양성평등의 관점에서 살펴 본 가사노동연구의 동향과 의의

그렇다면 가사노동에 대한 연구의 관점은 어떤 흐름을 갖고 있는지 살펴보려고 한다.

가정(관리)학 영역에서의 가사노동은 크게 에너지, 시간, 분담, 선호도와 만족도, 가치평가, 동향 등의 범주에서 연구되고 있다 (이기영·김외숙, 2002). 이러한 연구주류에 대하여 가정(관리)학 외부의 학자들은 미시적인 수준에서의 연구라는 지적을 하기도 하며 (홍승아, 1998), 혹은 기존의 성별 역할분담에 대한 문제제기를 하지 않은 채 가사노동 자체의 현상에 대한 탐색에 집중함으로써 여성문제를 간과하거나 더 나아가 불평등한 성별 역할분담 체계를 지지하고 있다는 비판도 있다 (김혜경, 1985 ; 이기영·송혜림, 1993).

초기부터 가정(관리)학 연구들이 가사노동 수행 양식이라는 현상 자체에 대한 탐색에 초점을 두어 왔으며 그 원인과 본질에 대한 탐색에 소홀했다는 자기 반성이 필요하기는 하나, 이러한 연구의 결과들은 현재 가사노동으로 인한 여성의 부담이 얼마나 크며, 이것이 양성평등에 얼마나 장애요인이 되는지, 결과적으로 사람들이 왜 가사노동을 회피하는지를 다루며, 가사노동의 전담자로서 겪게 되는 사적/공적 영역에서의 불이익을 지적함으로써 가사노동과 관련된 전반적인 생활양식과 현상을 체계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자료들을 제시하고 있다. 또한 이러한 가사노동 관련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을 모색하는 과정에서 최근에는 가사노동 관련 정책적 제안(정영금, 1996 ; 윤소영 1997 ; 1999 등), 가치평가 방법의 발전과 법제화 방안 (이기영·송혜림, 1990 ; 김선희, 1991 ; 문숙재·정영금, 1993 등), 가사노동의 사적 특성과 공적 특성 (이기영·윤미림, 2001 ; 문숙재·윤소영, 1996 ; 김선희, 2002a), 가부장제와 자본주의 등 정치사회적 관점에서 가사노동에의 접근(송혜림, 1993), 국민경제에서 가사노동이 갖게 되는 함의 (김선희, 1991), 가사노동의 사회화 과정이 우리 개인과 가정에 주는 영향 (이기영·구혜령, 1997 ; 구혜령·이기영, 2001 등) 그리고 전통사회에서의 가사노동과 그 역사(김선희, 1996 ; 1998 ; 1999 ; 2002b) 등과 같이 그 주제와 내용에 있어서 보다 광범위한 논의를 이끌어내고 있다.

이에 비해 여성학이나 페미니즘에서의 가사노동연구/논쟁은 한 편으로는 재생산노동으로서의 가사노동에 주목하며 그 생산성과 가치를 구체화시키려고 하는 흐름이 있었으며, 또 다른 한편으로는 여성해방 혹은 양성평등을 위한 사회적 노동에의 참여를 전제조건으로, 이를 위해 가사노동을 어떠한 형태로든지 해결해야 할 필요성을 제기하면서 가사노동을 여성해방의 장애요인으로 파악하는 연구들도 있다 (김정선, 1991 ; 김혜경, 1985 ; 홍승아, 1998 등). 이러한 연구에서는 가사노동의 사회화·공무화·집단화 등을 통한 축소 (클로디 브로이엘, 1985), 가사노동의 철폐(Werlhof, 1985), 가사노동에 대한 임금 요구 (Dalla Costa, 1973) 등이 그 해결대안으로 제시되고 있다. 페미니즘의 범주마다 여성문제의 원인에 대한 시각과 해결방안의 제시에서 차별성과 다양성을 나타내지만, 결

국 여성해방의 전제조건은 사회적 노동에의 참여로 이루어진다는 것이며, 무보수 가사노동을 담당하는 것으로 한 인간의 경제적 독립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가사노동을 담당하는 한 여성은 가정적·사회적으로 불리한 위치에 설 수밖에 없다는 주장에는 일치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3. 가사노동이 여성의 노동이라는 증거들

앞에서 제기한 가정에서의 불평등한 성별 역할분담을 구체적으로 파악하기 위하여 가사노동의 수행 및 분담과 관련된 실태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 성별 가사노동 시간 사용

남성과 여성이 가사노동을 위해 사용하는 시간량은 얼마나 되는가를 살펴보면 다음 표와 같다.

<표 1> 성별 가사노동시간사용 분포(1999)

단위 : 시간 : 분

	전체			여성			남성		
	평일	토요일	일요일	평일	토요일	일요일	평일	토요일	일요일
가사	1:53	1:59	2:02	3:20	3:27	3:24	0:25	0:30	0:41

자료: 통계청, 생활시간조사(1999)

또한 이러한 시간사용실태를 여성의 취업과 관련하여 살펴보면 다음 <표 2>와 같다.

<표 2>는 전체 대상자 중 얼마만한 비율이 해당 영역의 가사활동에 참여했는가를 함께 제시하고 있는데, 전반적으로 남성의 경우는 청소 및 정리, 집관리, 물품구입, 가족보살피기 등의 영역에 보다 많이 참여하는 것으로 보여 선행연구들과 일치하는 경향을 보인다. 즉 가사노동 중에서도 남성적 특성이 많이 내포된 일 혹은 가족(자녀)보살피기와 같이 아버지로서의 역할 수행, 보람, 기쁨 등을 함께 누릴 수 있는 영역에 남성들이 많이 참여하는 것으로 보인다. 위의 표를 보면, 여성이 전업주부인 경우 남편의 참여는 당연히 매우 저조하며, 취업주부의 남편이라도 그렇게 많이 증가되지 않는 현상을 보여준다.

〈표 2〉 주부의 취업여부에 따른 가사영역별 부부간 가사노동 참여비율과 참여시간(199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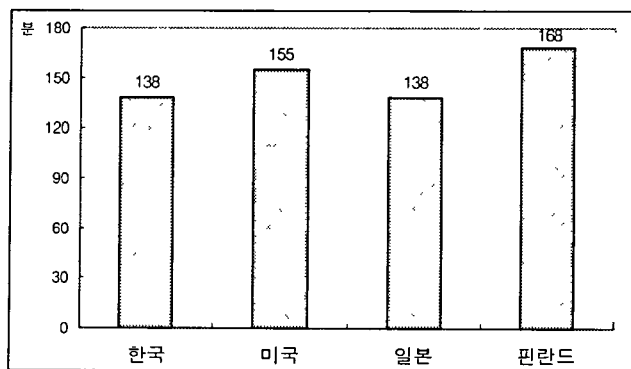
단위 : 시간 : 분

가사항목		전업주부가정		취업주부가정	
		부인	남편	부인	남편
총가사	행위자비율	99.8	39.5	99.0	43.3
	행위자평균시간	6:43	1:06	4:45	1:00
음식준비/정리	행위자비율	99.2	4.4	96.5	8.8
	행위자평균시간	2:28	0:30	1:50	0:34
의류관리	행위자비율	74.4	1.3	56.0	2.2
	행위자평균시간	0:59	0:24	0:44	0:28
청소 및 정리	행위자비율	90.8	12.6	75.2	19.1
	행위자평균시간	1:01	0:31	0:45	0:32
집관리	행위자비율	16.2	8.3	8.4	10.5
	행위자평균시간	0:30	0:49	0:26	0:47
물품구입	행위자비율	62.2	7.9	37.8	7.4
	행위자평균시간	0:44	0:37	0:36	0:35
가정경영	행위자비율	20.7	2.4	11.5	3.5
	행위자평균시간	0:26	0:31	0:23	0:28
가족보살피기	행위자비율	79.3	20.5	56.2	14.2
	행위자평균시간	2:29	1:03	1:10	0:55

자료 : 통계청, 생활시간조사, 1999

2) 가사노동시간의 국제적 비교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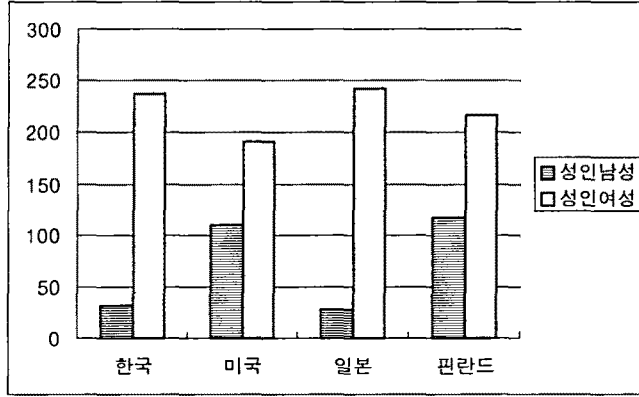
한국, 일본, 미국, 핀란드 등 4개국 생활시간 사용 자료를 비교한 연구의 결과 중에서 가사노동 관련 내용을 살펴보고자 한다. 먼저 여성, 남성을 포함하여 전체 집단의 가사노동 시간을 비교하면 다음 그림과 같다.



〈그림 1〉 성인 가사노동시간의 국제비교 (요일 평균 : 분)

1) 이기영·이연숙·김외숙·조희금(2001). 국민생활시간활용의 국제 비교. 1999 생활시간조사 종합분석사업 보고서 (5-3) 재인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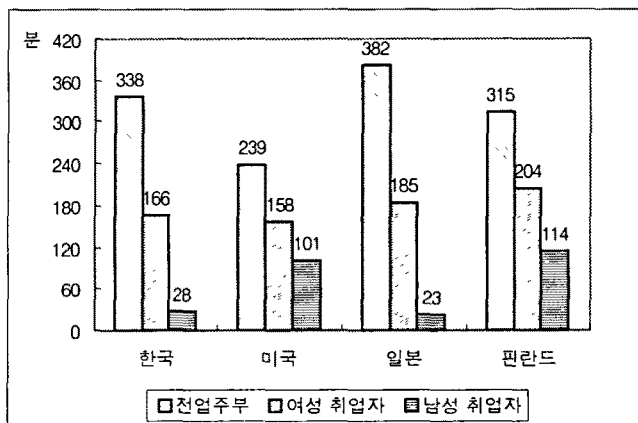
전반적인 가사노동시간은 요일 평균 138분으로 우리 나라가 다른 국가보다 많지 않은데, 이를 성별로 구분하여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그림 2〉 가사노동시간의 남녀별 국제비교 (요일 평균 : 분)

이 표를 보면 일본과 우리 나라 남성들의 가사노동 참여가 상대적으로 매우 저조함을 알 수 있으며, 따라서 그림 1에서 나타난 바, 우리 나라 사람들의 전체 가사노동시간이 다른 나라에 비해 적은 것은 다분히 남성의 가사참여시간이 적은 데에 기인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한편 가사노동시간을 성별과 취업여부에 따라 남성취업자, 여성취업자 전업주부의 세 집단으로 나누어 살펴보면 다음 그림과 같다.



〈그림 3〉 취업여부에 따른 가사노동시간의 국제비교 (요일평균 : 분)

한국의 전업주부들은 하루 평균 338분, 즉 5.6시간 정도 가사노동을 하고 있으며, 취업주부들은 166분, 즉 2.8시간 정도 가사노동을 하고 있다. 이러한 취업여성과 비교하여 한국의 취업남성들의 가사노동시간 하루 평균 28분으로 매우 저조하다는 것을 다시 한 번 확인할 수 있으며, 미국·핀란드와 같은 서구 사회 남성들과는 매우 대조적으로 참여율이 낮은 것을 알 수 있다.

3) 가사노동분담 관련 태도/견해/실태

가사노동 분담에 대한 태도를 살펴보면 다음 표와 같다.

〈표 3〉 가사분담에 대한 태도(1998)

단위 : %

구분		부인전담	주로 부인	공평하게 분담	주로 남편	남편 전담
맞벌이부부인 경우	전체	3.3	43.7	51.2	1.6	0.2
	여성	2.9	40.7	54.8	1.4	0.1
	남성	3.7	47.0	47.4	1.7	0.3
남편만 취업한 경우	전체	33.5	57.1	7.3	1.5	0.6
	여성	32.3	58.3	7.5	1.4	0.5
	남성	34.9	55.8	7.1	1.5	0.8
부인만 취업한 경우	전체	2.5	28.5	26.5	38.6	3.9
	여성	2.3	27.2	26.5	39.9	4.1
	남성	2.6	29.9	26.5	37.3	3.6

자료: 통계청, 사회통계조사보고서, 1999

맞벌이 부부인 경우 전반적으로 공평하게 분담한다고 생각하는 비율이 가장 높으나, 주로 부인이 담당해야 한다는 비율도 상당히 높아, 여성의 취업과 상관없이 가사노동은 일정 부분, 절대적으로 여성의 손에 의해 수행되고 있으며 사람들이 그렇게 기대한다는 것을 알려준다.

실제 평상시 가사분담은 어떻게 하고 있는가를 보면 다음과 같다.

〈표 4〉 평소 가사분담상태(1998)

단위 : %

		부인 전담	주로 부인	공평분담	주로 남편	남편 전담	해당 없음
교육 정도별	초졸이하	51.6	38.0	6.0	2.3	0.4	1.7
	중 졸	45.7	43.5	6.7	3.0	0.3	0.9
	고 졸	42.2	50.0	5.1	1.6	0.1	0.9
	대졸이상	35.5	56.7	5.4	1.1	0.1	2.3
활동 상태별	취업자	37.6	50.0	7.9	2.6	0.2	1.7
	실업자	49.9	41.1	5.9	1.8	0.0	1.1
비경제활동인구		50.9	43.2	3.4	1.3	0.3	0.9

부부중 부인이 응답.

자료: 통계청, 사회통계조사보고서, 1999

조사대상자의 학력, 경제활동 상태 등을 종합해 보아도, 가사노동은 부인 전담 그리고 주로 부인이 한다는 응답 비율이 80% - 90% 대로 나타나고 있다.

한편 여성취업에 대하여 여성과 남성이 각각 어떤 견해를 갖고 있는가를 살펴보면 다음 표와 같다.

〈표 5〉 성별 여성취업 장애요인에 관한 견해 (1998)

단위 : %

	여성의 능력	사회적 편견	직업의식 및 책임감 부족	승진 등 근로여건	가사 및 육아부담
전체	4.3	28.2	10.0	12.5	39.9
여성	4.0	27.6	8.1	13.0	42.2
남성	4.6	28.8	11.9	11.9	37.5

자료 : 통계청, 사회통계조사, 1998

여성, 남성 모두 여성취업의 제일 큰 장애요인을 가사 및 육아부담으로 들고 있어, 취업 및 취업 지속을 희망하는 여성에게 현실적으로 이를 어떻게 해결해야 할 것인가가 상당히 중요한 문제임을 알 수 있다.

4) 가사노동 관련 선행연구 고찰

특히 남성의 가사노동 참여, 가사노동 분담 등을 주제로 한 선행연구들의 결과를 요약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부부의 공평성 인지척도 개발에 관한 연구(박정희, 1998)를 보면 가정생활의 여러 영역에서 부부의 공평성 인지 정도를 측정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시장보기, 식사준비, 청소 등의 가사노동, 자녀양육 및 교육, 경제활동, 소비생활, 여가활동, 의사소통, 친척관계, 의사결정 등이 포함된 일상생활영역에서 조사대상 남편의 경우 공평한 대우를 받는다고 느낀 비율이 54.8%, 유리한 대우를 받는다는 응답은 25.7%, 부당한 대우를 받는다는 응답은 19.5%로 나타난 반면, 부인의 경우 각각 47.6%(공평), 22.0%(유리), 31.8%(부당)로 나타나 부부간 차이를 보이고 있다. 특별히 남편들은 소비생활, 여가활동, 의사소통, 친척관계, 의사결정 등의 영역에서 배우자로부터 비교적 공평한 대우를 받는다고 인지한 반면 가사노동 및 자녀양육 영역에서는 유리한 대우를 받는 비율이 각각 63.9%, 45.3%로 나타나며, 상대적으로 부인의 경우 이 두가지 영역에서 부당한 대우를 받는다는 응답이 많아, 다른 영역에서는 공평할 수 있는 부부들도 특히 가사노동 및 육아 영역에 있어 공평성이

실천되지 않을 가능성이 많음을 알 수 있으며, 결국 여성에게 더 많은 가사노동 부담이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와 유사하게 최근 맞벌이 부부를 대상으로 가사노동과 관련하여 부부의 공평성인지를 분석한 연구(기은광, 2003)에서는 부인의 74.8%, 남편의 69.1%가 현재의 가사노동분담이 부인에게 불공평하다고 인지하는 것으로 나타나, 가사노동수행의 책임이 주로 부인에게 있다는 것에 부부가 일치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부부의 성역할태도가 가사노동시간 및 노동공평성 인지에 미치는 상호작용적 영향력에 대한 연구(차성란, 1998)에서는 부인의 가사노동시간이 부부의 성역할태도에 영향을 받지 않으며, 따라서 성역할태도와 관계없이 부인들은 가사노동 수행의 일차적 책임자로 보인다는 사실을 지적하고 있어서, 역시 가사노동에 대한 일차적 책임은 여성에게 있음을 나타내고 있다. 또한 취업기혼여성의 일-가정갈등과 직업 및 생활만족도를 다룬 조희금(1999)의 연구에서는 사무직 기혼여성의 경우 남편의 가사분담이 많을수록 생활만족도가 높아진다고 하여, 남편의 가사참여가 갖는 의미가 크다는 사실을 제시하고 있다. 즉 남편의 가사참여는 부인에게 물리적인 노동부담의 경감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한 가정을 함께 만들어 간다는 동반자 의식·신뢰감 등과 맞물려 전반적인 생활만족도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하고 있는 것이다.

한편 남편의 가사참여가 어떤 영역에서 이루어지는가를 제시하고 있는 연구결과를 보면, 사무직 기혼여성 부부를 대상으로 한 조희금(1998)의 연구에서 남편의 가사분담비율은 20.9%로 나왔으며, 주로 참여하는 가사영역은 자녀 및 가족돌보기로 나왔다. 마찬가지로 유희숙·두경자(1999)의 연구에서도 조사대상자인 취업여성의 남편들이 주로 자녀돌보기와 주생활영역에 집중된다는 유사한 결과가 나타나고 있으며, 역시 취업한 주부라도 가사노동에 대한 주된 책임을 지고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 번 확인시켜 주고 있다. 기혼 남성들의 가사노동 참여 유형에 관한 사례연구에서 조성은·문숙재(1998)는 남편의 가사노동참여 유형을 자발성, 외부적 압력의 복합적 정도에 따라 가사노동 불가피형, 가사노동 거부형, 가사노동 회피형, 가사노동 참여형 등 네가지 유형으로 구별하고 있는데, 전체 조사대상 남성 중에서 가사노동 거부형이 42%로 가장 많고, 그 다음이 가사노동 회피형, 가사노동 불가피형, 가사노동 참여형 등의 순서로 나와, 자발적으로 가사노동에 참여하는 남성은 많지 않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또한 이 연구에서도 남편들의 가사참여는 가족원돌보기와 주생활 영역에서 가장 많이 이루어져 선행연구의 결과와 일치하고 있다.

이처럼 다양한 통계자료와 선행연구들은 가사노동을 주로 여성이 전담하고 있다는 점, 여성이 취업해도 이러한 상황이 크게 변하지 않는다는 점, 남성의 가사노동참여는 절대적으로 저조하지만, 참여할 때에조차 일정한 가사영역에 편중되는 경향을 보인다는 점 등을 일관되게 보여주고 있다. 가사노동을 중심으로 이러한 현상들을 종합해 보면, 여성이 가사노동에 대한 주된 책임을 갖고 있

다는 절대적인 수행비중의 차원도 중요하나, 구체적인 수행양식도 함께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즉 남성은 힘든 가사노동을 안 할 수 있는 권리가 여성보다 많다고 보여지며, 자신이 선호하는 일, 잘 할 수 있는 일, 취미나 여가, 보람, 기쁨이 포함되는 가사노동영역을 선택할 여지가 여성보다 높다는 것이다. 따라서 여성과 남성의 절대적인 가사노동참여시간 뿐 아니라 그 수행양식과 조건을 함께 분석해야 보다 구체적이고도 정확한 불평등의 양상을 도출해 낼 수 있으며, 그래야 보다 적절한 해결이 대안을 모색할 수 있을 것이다.

4. 가사노동과 주부

가족원의 일상적 욕구충족을 위한 가사노동을 주로 여성이 담당하고 있다는 사실은 가사노동문제가 곧 주부문제와 직결됨을 의미한다. 여성이 단지 여성이기 때문에 겪게 되는 사회 전반에 걸친 차별을 중심으로 여성문제를 논한다면, 가사노동과 관련되어서는 특히 주부문제를 초점으로 논의를 전개시킬 수 있다.

본 연구에서 주부에 대한 접근은 크게 두가지 요소로 구별하고자 한다. 첫째는 취업여부에 따른 구별이며, 또 하나는 가정의 소득정도에 따른 구별이다.

1) 취업주부와 전업주부

먼저 가사노동을 중심으로 취업주부와 전업주부를 비교해 보면, 그 양상이 상당히 다르다. 현재 기혼취업여성비율은 50%에 육박하고 있는데²⁾, 여성이 취업해도 가사노동의 부담이 그리 많이 경감되지 않는 현실에서, 취업주부에게 가사노동은 곧 직장노동과의 양립을 위한 이중노동부담과 직결되며, 이로써 생애 종단적 차원에서 취업의 지속성 그리고 매 시점에서 취업노동에 대한 집중력의 약화와 관련된다. 즉 육아를 포함한 전반적인 가사노동으로 인하여 여성에게 중단 없는 생애 지속적 취업은 현실적으로 상당히 어려우며, 동시에 매일 매일 육아와 가사노동에 투여해야 할 시간, 에너지, 관심 등으로 인하여 취업노동 중간 중간 단절이 생기며 집중적으로 일할 수 없는 조건에 처해 있다 (직장 점심시간을 이용하여 공공요금 내기 혹은 구매활동 하기, 아이 학원에 대한 점검, 급식참여를 위한 늦은 출근 혹은 조퇴, 아이나 노부모 병원방문으로 인한 결근 등). 즉 여성의 취업 생활은 생애를 통한 종단적 차원으로 보아도, 그리고 하루하루의 취업생활이라는 횡단적 차원으로 보아도 잦은 단절과 중단이라는 상황에 처할 가능성이 많은 것이다.

2) 2001년 현재 기혼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은 48.1%이다 (한국여성개발원, 2003)

결국 육아와 가사노동으로 인한 이러한 여성의 취약점은 여성 인력에 대한 고용자의 투자를 제한한다. 직업을 중단할 가능성이 좀 더 많은 여성에 대하여 남성과 동등한 재교육, 보습교육, 연수 등을 통한 인적 자원 향상의 기회를 제공한다는 것은 큰 부담 및 위협으로 작용할 수 있는 것이다. 이는 또다시 취업시장에서 여성의 경쟁력을 약화시키며, 여성노동력이 2차 노동시장에 집중되는 현상을 초래한다. 그리고 이 2차 노동시장은 저임금, 승진기회의 부족, 장래성 없는 직무, 열악한 노동 조건, 직업안정성의 결여 라는 특징을 갖기 때문에 (조희금 외, 2002), 이 영역에서 일하는 여성들은 또다시 가정과 직장 사이를 왕복하며 단절되는 취업생활을 하게 되는 악순환의 고리로 계속 이어지게 되는 것이다. 가족과 사회가 여성이 전담하던 가사노동을 분담해 주지 않으면 취업주부가 직면한 가정 안팎에서의 문제는 해결될 가능성이 없다.

또한 가정에서 여성이 가사노동을 한다는 사실은 사회에서 수행하는 여성의 일에도 영향을 미친다. 사회에서도 여성은 누군가를 돌보고 보살피며, 가사노동적 성격을 띤 직업노동영역에서 일하는 경우가 많다. 그리고 왜 그런지 그러한 직업노동은 지속성, 안정성, 소득, 자아성취의 기회 등 직업 지위를 결정하는 요인으로 분석할 때 그리 높은 평가를 받지 못하는 직업영역인 것이 현실이다³⁾.

이제 우리 나라 전체 인구의 13%에 해당하는 600만명의 전업주부(김선미, 2002)를 생각해 보자. 전업주부들이 이를 자발적으로 선택했는가 아니면 다른 기회 앞에 서지 못하거나 열악한 여성취업 생활에 대한 회의 때문에 비자발적 전업주부로 남게 되었는가 가장 본질적인 문제이다.

일단 전업주부는 취업주부와 같은 역할갈등, 시간제약, 이중노동부담의 경험을 별반 갖지 않고 살아간다⁴⁾. 특히 우리 사회의 독특한 현상 중 하나로서, 자녀양육과 교육(이에는 사교육에 대한 관리도 포함된다)은 가정이 수행하는 그 어떤 일보다 우선적인 일로 간주된다. 따라서 가사노동을 전담하는 전업주부는 자녀교육 및 대학입시와 관련되어 정보수집, 의사결정, 재무관리, (학원, 과외 등) 보내기와 데려오기, 도시락과 간식, 다른 가족원 관리 등 다양한 가사노동을 전담하게 되며, 이

3) 여성은 상용직보다는 임시직, 일용직에 더 집중되는 경향을 보이며 (2000년 현재, 여성의 종사상 지위별 취업실태를 보면, 상용직에 29.8%, 임시직 46.2%, 일용직에 24.0%로 고용되어 있다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2001). 또한 고위임직원 및 관리자(0.3%)나 전문가, 기술공, 준전문가(12.7%)와 같은 직종보다는 서비스판매직(34.9%), 기능원 및 단순노무자(24.3%)와 같은 직종에 더 집중되어 있다 (ILO, 1999). 여성취업집단 전체가 받는 월평균 임금은 2001년 현재 124만5천원으로서 196만9천원을 받는 남성에 비하여 63.2%에 해당한다 (한국여성개발원, 2003).

4) 전업주부가 취업주부와 같은 이중노동부담의 조건에 있지 않다는 맥락에서, 가사노동의 분담과 관련하여, 과연 전업주부의 가정에서도 남편을 포함한 가족원의 가사노동분담이 필요한가를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다. 이중노동부담에 시달리지 않는다고 가사노동이 늘 수월한 것은 아니지만, 일단 취업주부와 같은 부담의 필요성은 갖지 않을 수 있다. 이 경우 가사노동의 부담은 오히려 전업주부, 즉 여성의 입장에서 접근하기 보다는 가족원의 입장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 주부가 그것을 요구하던 안 하던, 가족원은 가족원으로서 가정생활에 주체적으로 함께 참여하며 자기 삶에 필요한 가사노동의 기술을 익히고 익숙하게 경험하기 위하여 전업주부의 가정에서도 가족원의 가사노동참여는 필요하다

는 매일매일 시간제약을 경험하는 취업주부로서는 도저히 따라갈 수 없는 것이다. 전업주부가 갖고 있는 살림의 기술과 지식 뿐 아니라, 자녀교육과 관련된 정보의 양과 내용은 취업주부가 쉽게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며, 이는 전업주부가 갖는 권력이 되고, 동시에 우리 사회에서 전업주부로 살아가는 하나의 큰 혜택이 될 수 있다. 이 혜택은 사회에서 취업주부가 가질 수 있는 경제적 독립성, 소득 획득자로서의 사회적 정체감 등과 맞바꿀 수 없는 매우 독특한 성격의 것이다 (송혜림, 2002).

그러나 이러한 혜택 이면에, 자녀교육을 비롯하여 가족의 복지를 과도하게 책임지려는 주부들의 노력은 자칫 '가족이기주의적' 성향을 나타내기도 해서 (물론 꼭 전업주부만 그러리라는 보장은 없다) 주부 전체 집단에 대한 비난으로 이어지기도 한다.

또한 가사노동이 갖는 분산성, 고립성, 개별성 그리고 무보수성과 같은 속성은 가사노동을 전담하는 주부들의 자아정체감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리라고 기대하기 힘들다는 것에도 논의의 초점을 두어야 할 것이다. 전업주부들은 세탁, 식사준비, 집안정리, 자녀양육, 가족관계의 관리 및 유지를 통해 일상적 가족생활의 재생산에 기여하며, 이를 통해 노동력이 재생산된다. 그러나 교환가치와 잉여가치로 노동의 경제적 가치를 평가하는 자본주의 사회에서 가사노동은 교환을 거치지 않고 사적인 부문인 가정 내부에서 생산되고 소비되므로 주부들의 가사노동은 그들에 가려져 있으며, 보수도 지불되지 않기 때문에 가치 있는 노동을 하고 있다는 인정과 평가를 받기가 힘들다 (김선미, 2002). 그리고 이러한 가사노동의 무보수적 특성은 여성노동시장에도 반영되어 기혼여성들이 갖는 취업노동의 기회비용을 낮추게 되며, 결과적으로 취업여성노동력은 저임금을 감수해야 한다 (이기영·김희숙, 2001).

그리고 자녀양육과 교육이라는 중요한 가사노동이 더 이상 집중적으로 요구되지 않는 시점, 즉 자녀의 대학입학 이후의 시기에 전업주부는 과도한 가사노동으로부터 벗어나 자유로운 여가생활을 즐길 수 있는 기회를 가짐과 동시에, 다른 한 편에서는 커다란 역할상실감을 경험할 수도 있다. 20대 중반에 결혼, 1-2명의 자녀 출산 후 단산이라는 평균적 한국 여성의 생애주기를 생각할 때, 이미 40대 초/중반에는 자녀교육 및 관련된 가사노동은 갑자기 줄어들게 되며, 주부의 삶은 새로운 국면 앞에 서게 된다. 자녀교육과 가정살림의 경험을 경력으로 쳐주지 않는 사회에서 이 시기 전업주부가 겪게 될 정체감의 혼돈, 목표상실은 중년기에 자유를 다시 찾을 수 있는 기회의 증가라는 긍정적 현상보다 더 자주, 더 많은 전업주부들에게 찾아 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송혜림, 2002).

여성의 취업이 과거처럼 단지 경제적 이유에서 뿐 아니라 다양한 원인과 배경을 통해 활성화되며 사회의 한 현상으로 당연시되는 지금과 같은 과정에서, 전업주부는 취업주부와 비교하여 상대적 결핍감을 가질 가능성도 있다. 소득을 창출하는 '가치' 있는 노동을 하지 않고 있다는 이유 때문에, 기실 주부들이 가장 듣기 싫어하는 말이 "솔뚜껑 운전사" "부엌데기" "무직자" "놀고 먹는다" "남편이 먹여 살린다" 라고 유포되어 있는데 (www.jubu21.or.kr 사이버강의 「주부론」 참고), 이는 무

보수 가사노동을 전담하는 전업주부에 대한 사회의 편견을 드러내고 있으며, 그에 대한 주부들의 저항감을 내포하고 있다.

또한 가사노동의 사회화 현상과 함께 분석해야 할 전업주부의 문제도 있다. 외식, 패스트푸드, 냉동식품, 급식, 다양한 가사노동 경감 기계, 빨래방 등 가사노동의 사회화는 갈수록 진행되고 있으며 확산되는 추세에 있다. 당연히 가정에서 수행되는 가사노동은 축소되어 가는 추세에 있다. 그렇다면 가정에서 전업주부들은 무엇을 하고 있을까? 현재 전업주부를 ‘집에서 놀고 먹는’ 집단으로 인식하는 것은 분명 편견이고 잘못된 평가라 해도, 점점 가사노동의 사회화가 진전될수록 전업주부는 적어도 ‘놀고 먹는’ 존재는 아니지만 정말로 ‘별 일 안 하는’ 집단이 될 지도 모르는 일이다 (송혜림, 2002).

결국 쟁점은, 가사노동을 전담하는 전업주부로 살아간다는 것이 자발적 선택이었는가 하는 본질적 문제로 다시 돌아간다. 물론 이를 분석하기 위해서 그리고 위에서 제기한 바, 가사노동수행을 통한 전업주부의 혜택과 비용 등을 다양한 상황에 적용하기 위해서 개별 주부가 속한 가정의 경제적 지위라는 요소를 고려해야 한다.

2) 소득계층과 주부

남편의 소득만으로 생활이 보장되는 가정의 전업주부와 그렇지 않은 가정의 전업주부는 매우 다른 삶을 살아가게 된다. 중산층 이상 가정의 전업주부는 표면적으로는 자발적 전업주부인 경우가 많을 것이다. 이중노동의 고통을 겪어지면서까지, 자녀와 가족에게 해야 할 일을 제대로 못 하면서까지 취업생활을 해야 할 필요가 없는 계층이기 때문에, 상술한 바와 같이 자녀교육, 가정살림에 자발적으로 집중할 수 있으며, 동시에 여가와 취미도 즐길 수 있는 상황에 있다. 따라서 자녀교육과 관련된 가사노동의 전담자로서 전업주부가 갖게 되는 혜택은 다분히 이 계층 가정의 여성들에게 적용될 수 있는 말이다.

그러나 이러한 계층의 전업주부들에게도 그들의 활동이 사회적으로 평가받지 못하며, 공적인 사회에서 자신의 이름과 자리를 찾을 수 없는 문제는 여전히 남아있다. 그리고 중년과 노후를 위한 준비를 미리 하지 않는 한, 자녀가 다 자란 후 일정한 부분 역할상실과 혼란을 겪을 가능성도 남아 있다. 또한 가계소득이 충분하다 해도 그 소득이 남편에 의하여 창출되는 한에 있어서, 주부의 경제적 독립성이나 경제적 권력, 의사결정권 등이 남편과 동등하리라는 보장은 없다. 획일화에 저항하며 가정의 개성과 문화를 찾기 위해 과도하게 가사노동에 몰입해야 하는 요구에 직면할 수도 있고, 그것은 주부에게 부담으로 작용하기도 한다. 동시에 ‘가족이기주의의 주범’으로 비난받고 있는 주부 집단은, 전체 주부 중에서도 다분히 경제력이 있는 가정의 주부일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자기 스스

로, 그리고 외부적으로도 그러한 비판의 대상으로 갈등을 가질 확률도 많다.

반면 저소득가정을 보면, 일단 경제적 필요 때문에 어떠한 형태로든지 소득창출활동에 참여하고 있을 확률이 크며, 따라서 비자발적 전업주부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전업주부는 가족원의 욕구충족을 위한 가사노동을 기계, 상품화된 재화와 서비스 등으로 대체할 만한 여유를 갖지 못하기 때문에 가사노동을 직접 수행하는 측면이 강하다. 동시에 생계생산적 범주의 가사노동을 수행함으로써 가게 밖으로 지출될 비용을 감축시키기도 한다 (Song, 1992 ; Mies, 1985 ; 이기영·윤미림, 2001). 이러한 가정에서 전업주부들이 수행하는 가사노동은 따라서 충분히 가게 소득과 상쇄될 만한 가치를 갖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임금의 형태로 지불되지 않는 한 그러한 평가를 정당하게 받지 못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주부들에게 자녀교육이나 가사노동을 전담한다는 사실이 전업주부로서의 혜택으로 다가올 가능성은 적다.

이처럼 자녀교육을 포함한 가사노동 수행양식과 주부들이 속한 계층은 다소 상이한 방식으로 연결된다. 소득이 충분한 가정에서는 그동안 취업했던 주부들이 자녀가 고등학교에 입학하면서 혹은 고3이 되면서 자녀교육에 열중하기 위하여 취업을 그만두기도 하지만, 소득이 낮은 가정에서는 그동안 집에 있던 전업주부들도 자녀교육비 마련이라는 필요성 때문에 열악한 조건에도 불구하고 취업시장에 진입하는 정반대의 현상이 바로 그것이다.

가사노동과 주부 관련 논의를 종합해 본다면, 여성이 가사노동을 담당한다는 사실은 개인적으로는 아내와 남편 간에 불균형을 초래한다. 생활경험, 관심, 기술과 정보 등에 있어서 서로 다른 영역에 살기 때문이다. 또한 그것이 무보수로 수행되기 때문에, 경제력에 있어서 남편과 아내 간에 불평등의 소지가 있다. 그리고 이것이 사회로 확산되면 전체 여성집단과 전체 남성집단간 불평등으로 귀결된다.

5. 남녀가 더불어 사는 생활문화 정착을 위한 제언

여성인 가사노동을 담당한다는 사실이 주는 혜택도 있고 비용도 있으며, 그로 인한 보상도 있고 불이익도 있다. 본 연구에서는 가사노동 자체가 문제라기보다, 그것을 주로 여성이 담당하며 사적인 개별 가정에서 분산적으로, 고립되어 행해지는 수행의 조건에서 문제의 초점을 찾고자 하였으며, 여성 즉 주부가 가사노동을 담당하는 것이 과연 자발적인 선택인가 하는 점을 함께 분석하고자 하였다. 이제 평등한 생활문화 정착을 위하여 가사노동과 관련된 어떤 대안들이 있는지 간략하게 모색해 보고자 한다.

먼저 제도적 차원에서의 대안을 모색해 보자. 최근 여성부에서는 (가칭) 평등가족기본법을 제

정하려는 움직임이 보이며, 보건복지부에서는 (가칭) 건강가정육성기본법(가정복지기본법)⁶⁾을 제정하려고 한다. 바야흐로 가족과 가정이 각광 받는 시대가 되었는지, 아니면 그토록 가족과 가정이 문제인지, 아마도 이 두 가지 다 해당되겠지만, 양성평등한 가족관계의 정립과 민주적 가정생활의 지원이라는 차원에서 제도적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은 분명하다.

그동안 제도와 정책은 다분히 가정 외부의 공적 영역에 대하여 관심을 집중시켜온 측면이 있으며, 가족 내부의 실제적인 생활모습으로 눈을 돌리기 시작한 것은 오래 되지 않았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사실 가족생활에 대한 제도의 간섭은 그 효력에 한계가 있고 위협의 소지도 있다. 자발적인 생활의 주체로서 가족원을 본다면, 지나친 간섭은 가정의 자립을 방해할 수 있다. 또한 그것이 지극히 사적인 생활세계이기 때문에 공권력이나 제도적 개입은 공적 생활세계에서처럼 효력을 발휘하기가 힘들다. 법안들은 양성평등한 가족가치를 표명하고, 민주적 가정생활을 지원한다고 하지만, 남녀고용평등법이나 모성보호 관련 법령 등에서처럼 상벌체계를 확실히 정립하고, 강제규정을 두기는 힘든 일이다. 결국 가정에 관련된 제도와 법규들은 가정폭력이나 아동폭력과 같은 극단적 문제를 제외하고는 예방, 권고의 차원에 초점을 두기가 쉽고, 따라서 그 구체성과 실효성이 다소 떨어질 가능성이 많다.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하여 다양한 차원, 유형, 내용의 제도적 운동이 일상생활 속에서 이루어져야 하며, 정책과 법규는 이를 적극적으로 시행하고 지원해 줄 필요가 있다.

예컨데, 그것의 성공여부는 차치하고, 여성부가 제시하고 있는 국민의 정부 5년 여성정책의 성과 중 하나로서, 성차별적 의식 및 관행 개선을 위한 5대 생활문화 개선운동이 있다. 여기에서는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서 평등문화가 뿌리내릴 수 있도록 살림문화, 명절문화, 육아문화, 자녀교육문화, 회식문화를 개선한다는 목표 아래 생활 속에서 실천할 수 있는 변화의 방향을 주고 있다⁷⁾. 이것이

5) '결혼하고 아이 낳고 남편은 나가서 돈벌고 아내는 집에서 살림을 하며 노부모를 모시고 평생을 산다'는 식의 가족에 대한 통념은 이제 수정할 때가 되었으며, 다양한 형태의 가정이 일반화되는 추세에서, 정부가 가족에 '개입'키로 하였고, 그 노력의 일환이 여성부가 제정을 추진 중인 '평등가족기본법'(가칭)이다. 여기에 등장하는 민주적 가족관계 정립 목표 설정, 가족 보호노동에 대한 사회분담화 정책 선언 등은 주부의 역할 변화에 따라 마련된 정책이며, 여성만 가사노동을 전담하는 상황이 더 이상 지속돼선 안된다는 의지가 담겨 있다 (중앙일보 2003년 4월 7일자)

6) (가칭)건강가정육성기본법 시안에서 가사노동, 양성평등과 관련된 내용을 보면, 민주적 가정, 양성평등한 가족 가치, 가사노동의 정당한 가치평가를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부양·자녀양육·가사노동 등에 가족원이 함께 참여하는 가족가치, 자녀양육과 교육에 대한 부부의 공동책임, 이에 대한 사회적 책임 등이 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3).

7) ○ 살림문화 (함께 해요!)
 - 살림! 엄마아빠 함께 하면 자녀에겐 교육입니다 - 살림! 함께 하면 기쁨, 혼자하면 고통
 ○ 명절문화 (함께 즐겨요!)
 - 명절연휴, 아내도 쉴 수 있게 해주세요 - 함께 하면 기쁨명절, 혼자하면 고된명절
 ○ 육아문화 (함께 키워요!)

진정 우리의 생활 속에서 뿌리내릴 수 있으려면 구호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실천적 행동으로의 적용 가능성 모색 모범사례의 발굴 및 지원, 다양한 서비스와 프로그램을 통한 구체화의 노력이 따라 주어야 하며, 제도와 정책은 바로 이러한 현실적 내용들을 적극 지지해 주어야 한다. 가족의 눈으로, 가족의 입장에서 제도와 정책이 구상·입안되어야 하며, 가정생활의 주체인 우리 가족원들의 요구가 반영되어야 한다. 제도와 정책은 멀리 있어 공적 전달체계를 통하여 다가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생활 속에서 아주 익숙하게 경험할 수 있어야 하며, 구체적인 삶 속에서 실효성을 가져야 한다.

또한 남녀노소가 가사노동에 익숙하게 참여하고, 여성에게도 남성에게도 가사노동이 부담으로 작용하지 않고, 주체적인 생활설계에 걸림돌이 되지 않으며, 그것이 부담이라면 개인과 가족과 사회가 분담할 수 있는 체계를 위해 교육이라는 기제를 효율적으로 활용할 필요도 있다. 가정, 가사, 생활(바른 생활, 생활의 길잡이 등) 등 교과목 내용의 전환도 필요하고, 평등가족가치를 전달하는 교과목의 신설 및 의무교육화 등은 제도가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다. 동시에 국가와 사회는 어떠한 방식으로 개인과 가정의 부담을 덜어줄 수 있는가에 대하여 실효성 있는 방안을 연구하여야 한다.

마지막으로 개인적, 가족적 차원에서의 노력은 결국 제도와 법과 규정을 뛰어넘는 것이다. 법이 강제적으로 그것을 강요하기 때문이 아니라, 가족원 스스로의 역할분담인식, 양성평등의식의 변화가 수반되지 않으면 안 된다는 문제제기를 공유할 필요가 있다. 더욱이 가정 내부의 문제에 대한 공적 간섭과 개입에는 한계가 있고, 강제적인 정책, 제도, 규정, 법규로만 해결될 수 없는 독특한 일상성의 문화가 가정에는 있다. 따라서 자발적이고도 주체적인 인식 변화에 대한 동기가 필요하다.

최근 가족/여성 관련 통계(출산율, 이혼율, 혼인율과 혼인연령, 가족형태 등)와 우리의 경험은 ‘행복한 가정’이 과연 무엇인가에 대해 재고하게 한다. 특히 저출산율로 유명(?)한 나라, ‘출산과업중인 사회’ 그리고 ‘아이를 거부하는 사회’가 (조한혜정, 2003) 바로 이 곳,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인지에 대하여 다양한 관점에서의 접근이 필요하다. 결국 ‘행복한 가정’은 평등하고 민주적인 가족관계 아래 가족원이 함께 쉬고 함께 일하며, 서로를 억압하지 않고 억압받지 않는 가정이 아닐까? 그러기 위해 노동의 가치에 대한 우리 인식의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하다. 한 가정을 위해서는 돈만 필요한 것이 아니다. 날마다의 일상생활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말로 거론할 수도 없이 하찮아 보이고 사소해 보이는 수많은 일들이 수행되어야 하며, 이것이 바로 가사노동이다. 따라서 양성평등한 사회, 남녀가 더불어 사는 생활문화를 위해 ‘남녀가 그리고 남녀노소가, 더 나아가 가정과 사회가 함

-
- | | |
|-------------------------|--------------------------|
| - 육아! 아빠가 참여하면 기쁨도 두배 | - 아빠의 육아참여, 엄마기쁨 자녀튼튼 |
| ○ 자녀교육문화 (함께 말아요!) | |
| - 아빠관심 받은 아이, 엄마교육 열매효과 | - 바깥 것은 남아선호, 가꿀 것은 능력존중 |
| ○ 회식문화 (함께 즐겨요!) | |
| - 회식은 가볍게, 술자리는 강요없이 | - 설제하는 회식문화, 후회없는 가정생활 |
- (여성부 홈페이지 자료 인용).

게 참여하는 다양한 양식의 가사노동의 수행양식'이 필요하다는 합의를 이끌어내고 실천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 참고문헌

- 구혜령·이기영(2001). 식생활과 의생활영역의 가사노동 상품대체와 그 영향요인.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9-2.
- 기은광(2003). 맞벌이부부의 가사노동공평성 인지와 그 영향요인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소비자학과 석사학위논문.
- 김선미(2002). 한국주부의 정체감과 사회의식 : 가사노동의 사회적 특성과 주부역할의 재정의를 위한 제언. 제 6차 환태평양 한국학 국제학술회의 “세계적 전망에서의 한국학” 자료집.
- 김성희(2002a). 전통사회 여성의 사적 영역과 공적 영역에서의 노동 - 삼국시대부터 조선시대까지. 한국가정관리학회지 20-6.
- 김성희(2002b). 한국여성의 가사노동과 경제활동의 역사. 학지사.
- 김성희(1996). 가정기기 도입에 따른 가사노동의 변화 - 현대과학기술에 의해 생산된 가정기기를 중심으로 -.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김성희(1998). 산업화 이전 사회에서의 여성의 경제활동.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6-2.
- 김성희(1999). 가사노동의 변화 : 전통사회에서 산업사회로.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7-4.
- 김혜경(1985). 가사노동이론에 관한 연구 : 여성해방론에서의 접근을 중심으로. 이화여대 여성학과 석사논문.
- 박정희(1998). 부부의 공평성 인지척도 개발에 관한 연구.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6-2.
- 송혜림(1993). 가사노동의 가치평가 : 서구 산업사회와 한국에 있어서 사회정치적 관점들. 한국가정관리학회 제 16차 학술대회 자료집.
- 송혜림(2002). 한국 기혼여성들의 정체감과 역할 비중 비교연구 : 모성의 중심성과 한국문화의 특유성. 제 6차 환태평양 한국학 국제학술회의 “세계적 전망에서의 한국학” 자료집.
- 송혜림·이기영(1990). 사회경제적 관점에서 살펴본 가사노동의 가치와 그 평가. 서울대학교 생활과학연구소 생활과학연구 15.
- 여성부 홈페이지 (2003년 4월 현재).
- 유희숙·두경자(1999). 취업주부와 남편의 가사노동 참여 실태 및 영향요인. 한국가족자원경영학회지 3-1.

- 윤소영(1999). 가사노동의 정책적 반영을 위한 연구.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5-1.
- 이기영·김외숙(2001). 가사노동과 시간관리. 한국방송대학출판부.
- 이기영·송혜림(1993). 가사노동의 가치평가에 대한 페미니즘의 영향과 가정관리학의 연구방향.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1-1.
- 이기영·윤미림(2001). 경제위기 하에서 가사노동에 대한 공적 요구를 통해 본 가사노동의 생산성 - 국제통화기금 체제하의 신문기사 분석을 중심으로 -.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9-3.
- 이기영·이연숙·김외숙·조희금(2001). 국민생활시간활용의 국제 비교. 1999 생활시간조사 종합분석사업 보고서 (5-3).
- 이지선·조혜정(1999). 중고등학생의 가사노동참여에 관한 연구. 대한가정학회지 37-3.
- 정영금(1996). 가사노동 가치 인정을 위한 정책적 과제.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4-3.
- 정영금(1999). 가사노동의 지원체계확립을 위한 연구.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7-3.
- 조미환·임정빈(1997). 기혼남성의 가사노동참여.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5-4.
- 조성오 편저(1994). 인간의 역사. 동녘.
- 조성은·문숙재(1998). 기혼 남성들의 가사노동 참여 유형에 관한 사례연구. 대한가정학회지 36-10.
- 조한혜정(2003). 동아일보 2003년 4월 10일자 <여론마당>.
- 조희금(1998). 사무직 기혼여성 부부의 가사노동 분담 실태 및 영향요인. 한국가족자원경영학회지 2-2.
- 조희금(1999). 취업기혼여성의 일-가정갈등과 직업 및 생활만족도. 대한가정학회지 37-2.
- 중앙일보 2003년 4월 7일자.
- 차성란(1998). 부부의 성역할태도가 부부의 가사노동시간 및 노동공평성 인지에 미치는 상호작용적 영향력. 대한가정학회지 36-9.
- 통계청(1999). 사회통계조사보고서.
- 통계청(1999). 생활시간조사.
- 통계청(1999). 한국의 사회지표.
- 통계청(2001). 경제활동인구조사.
-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03). 건강가정육성기본법 제정을 위한 공청회 자료집.
- 한국여성개발원(2003). 2002 여성통계.
- 홍승아(1998). 가사노동의 성격에 대한 연구 - 노동력 재생산을 중심으로.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6-2.
- Alleman-Tschopp, A. (1979). Geschlechtsrollen - Versuch einer interdisziplinären Synthese,

Bern:Stuttgart:Wien.

- Beer, A. (1984). Theorien geschlechtlicher Arbeitsteilung, Campus Verlag, Frankfurt/N.Y.
- Biesecker, A. (1987). Arbeit ist Zwang - Frauen ist doppelter Zwang - Zur Theorie der Frauenarbeit im modernen Kapitalismus-, in Sozialwissenschaftliche Forschung & Praxis für Frauen(Hrsg.), Beiträge zur feministischen Theorie und Praxis, Vol. 19.
- Dalla Costa, M. (1973). Die Macht der Frauen und der Umsturz der Gesellschaft. Berlin.
- ILO(1999). Yearbook of Labour Statistics.
- Kaufmann, F.(1995). Die Zukunft der Familie im vereinten Deutschland. Gesellschaftliche und politische Bedingungen. München :Beck.
- Mies, M. (1985). Subsistenzproduktion, Hausfrauisierung, Kolonisierung, in : Beiträge zur feministischen Theorie und Praxis, 9-10.
- Song, Hyerim(1992). Bewertung der Hausarbeit - gesellschaftspolitische Perspektiven in westlichen Industrieländern und Korea. Justus-Liebig-Universität Gießen, Doktorarbeit.
- Vanke, J. (1980). Household Work, Wage Work and Sexual Equality, Sage yearbooks in Women's Policy Studies 5.
- Werlhof, Claudia von. (1985). Auf dem Weg zu einer neuen Zwangsarbeit? Frauenarbeit im Agrarsektor Venezuelas, in : Beiträge zur feministischen Theorie und Praxis, 9-10.